

## 모의 화성탐험 '우주인들' 520일만에 돌아왔다

뉴스1 제공 | 2011.11.04 18:26

(서울=뉴스1 여인옥 기자)



'Mars 500 우주인들' AFP News1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장장 520일간의 모의 화성탐사에 나선 '화성 500(Mars500)' 우주인 6명이 4일 '무사귀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6월 3일 최초의 모의 화성여행에 나선 6명의 '우주인'은 그동안 직경 3.6m, 길이 20m의 주거 모듈과 3.2×11.9m 크기의 실린더형 의료 모듈, 음식 등을 저장하는 창고 모듈에서 외부와 완전 차단된 채 520일을 지냈다.

3명의 러시아인, 1명의 프랑스인, 1명의 이탈리아인, 1명의 중국인 지원자로 이뤄진 '우주인'들은 지난 2월 '화성에 착륙'한 뒤 화성의 표면과 비슷한 화성착륙모듈에서 착륙과 탐사활동도 벌였다.

유럽우주기구(ESA)의 인간 생명과학 전문가패트릭 순트블라트는 지구-화성 왕복에 걸리는 520일간 인간이 고립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승무원들이 정신적 상승과 하강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 버텼다고 평가했다.

또 단조로운 활동으로 인해 8월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전했다.

이 모의실험이 성적 긴장으로 충만한 영국 드라마 '빅브라더'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 승무원은 승선시키지 않았다고 AFP는 설명했다.

선장인 알렉세이 시트요프는 결혼 2주만에 모의실험에 참가했다.

무사귀환한 '우주인'들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뒤 다음주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

우주인들은 각자 300만루블(10만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Mars 500'의 모의선실. '우주인'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것에 대비해 푸른 조명을 비추고 있다. AFP News1

☞ 뉴스1 바로가기

[주식대출] 마이너스대출로 연 6.9% 확정금리, 연장수수료 없이 5년간 ☎ 1577-585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10417478275844&type=1>

프린트

닫기